



## 우리나라 산림육성정책과 투자방향 요약

지난 6월 5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가진 농어촌분야 정책토론회 산림부문 자료로서 배영돈 산림청 기획예산담당관이 발표한 내용 일부(요약분)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편집실

조선조말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 산림은 아름답고 울창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들어오면서 36년 동안 현재의 남한 전체 입목축적량의 1.3배에 이르는 5억 $m^3$ 을 벌채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의 혼란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황폐화되어 갔습니다. 이리하여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입목축적량은 1910년에 43 $m^3$ 이던 것이 1952년에는 6 $m^3$ 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2차 경제개발계획추진 10년 동안에는 태백산맥을 따라 남아있는 입목마저도 탄광갱목이나 건설자재용으로 약 1천만 $m^3$ 를 벌채하여야만 했습니다. 1960년초 우리나라 황폐지 면적은 68만ha에 달하여 연료난과 함께 한밭과 더불어 흉수 때에는 농토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1967년에 산림청을 발족하고 황폐지에 대한 사방공사에 나섰고 1973~1987년까지 1·2차 치산녹화계획을 세워 황폐산지에 잘 견디는 사방수종으로 아까시, 오리나무를, 조림수종으로는 농촌연료용과 속성녹화가 가능한 리기다소나무, 현사시 등을 심었습니다. 그후에 산의 토양이 좀 나아지고 부터는 잣나무, 낙엽송, 밤나무 등 목재생산과 소득수종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녹화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제기구(FAO)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녹화를 완성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의 산림동향을 잠깐 돌아보면 산림은 지구생태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근본으로서 지속가능하게 보호되고 이용되어야 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이라는 산림원칙을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산림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림에 대한 인식도 전통 목재생산 기능에서 생물종의 보존, 산소공급, 대기정화, 수원조절기능, 방풍·방음, 토사유출방지, 건강증진, 휴식공간제공 등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차 치산녹화기에 한꺼번에 심어놓은 나무 약 300만ha를 시급히 가꾸어 주어야 할 시기에 와 있으며, 송이(연간 생산액 382억원 / 수출액 28백만\$)를 생산하기도 하지마는 세계적으로 형질이 우량한 소나무로 유명한 금강소나무림 40만ha에 대한 후계림을 조성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참나무에서 얻고 있는 표고버섯(연간 생산액 1,648억원 / 수출액 4백만\$)은 맛과 향이 뛰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참나무림 170만ha에 대하여 맹아갱신을 해 나가야 하며, 리기다소나무림 60만ha에 대하여 고로쇠나무(연간 생산액 62억원), 밤나무(연간 생산액 2,571억원 / 수출액 78백만\$) 등 소득수종으로 갱신해 나가야 하는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로부터 한계농지에도 소득수종으로 조림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렵게 녹화에 성공한 산림을 우리나라 경제성장 속도에 걸맞게 꾸준하게 가꾸어 나아갈 때에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게 될 즈음에는 우리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